

미래예측을 통한 시간지각이 개인연금 가입의도에 미치는 효과*

김 정 애

김 재 휘†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개인연금가입상황을 시점간 선택상황으로 간주하고, 개인연금의 가입의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적 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선행연구들이 간과했던 시간적 요소가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는 2(예측방식: 순향 vs. 역향) x 2(정서 사건: 긍정 vs. 부정)의 요인설계로 미래의 예측 방식과 정서 사건에 따라 개인연금의 가입의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더불어 시간지각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1의 결과 시간지각이 실제 개인연금 가입여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연구 2는 예측방식의 주효과와 예측 방식과 정서 사건에 따른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순향보다는 역향예측 조건에서 개인연금의 가입의도가 높았다. 순향예측 조건에서는 부정적인 사건을 예상했을 때, 역향예측 조건에서는 긍정적인 사건을 예상했을 때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의도가 높았다. 그리고 시간지각의 매개된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학문적 의의와 실무적인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개인연금, 미래예측, 예측방식, 순향예측, 역향예측, 정서사건, 시간지각, 개인연금가입의도

*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하였음.

본 논문의 [연구 1]은 소비자학회 '2016년도 하반기 학문후속세대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하였음.

† 교신저자 : 김재휘,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kinjei@cau.ac.kr

서론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노후의 자신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은퇴한 이후 노후에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 경제, 사회적 관계의 측면 등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그중에서 경제적인 요소는 은퇴 이후 시기에 더 중요한 요소이다(임태순, 2013). 경제적인 준비가 부족했을 때 은퇴 이후 노후의 삶의 만족도는 감소하게 되는데, 실제 50대와 60대의 사람들에게서 삶의 질과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본 조사에서, '경제적 측면의 노후준비 부족'을 중요한 원인으로 뽑았다(김동열, 2016). 따라서 은퇴 이후에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젊은 시기부터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현실은 다른 국가 및 시기보다 젊은 시기에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기도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super-aged society)로의 진입속도가 다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가들보다 빠르기 때문이다(전명진, 문성원, 2016; 통계청, 2015).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는 결국 노후 시기가 길어진 시기만큼 더 많은 경제적인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길어진 은퇴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제적 자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더 어린 나이부터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체계는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1층),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퇴직연금(2층), 여유 있는 삶을 보장하는 개인연금(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

인 국민연금의 불안정성(김원섭, 강성호, 2008; 나혜림, 최현자 2014; 이용하, 2011)과 퇴직연금의 공급제한 및 연금으로써의 부적합한 운용방식으로 인해 개인연금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김대환, 최원, 2011). 재무 설계 관점에서 보면, 개인연금은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경제적인 측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수단이다.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적어도 노후에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함으로써 몇 십 년 이후의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적어도 지금 현재와 같은 수준의 삶을 계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김수완, 김순옥, 2007; 백은영, 2012; 최현자, 2014; 차경욱, 2015). 하지만 개인연금 시장여건의 미성숙과 장기간 운용되는 상품인 관계로 아직까지 보편적인 상품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전승훈, 임병인, 강성호, 2006).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미래의 경제적인 대책으로써의 개인연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가입률은 낮은 편이다.

개인연금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선행연구들은 개인연금에 대한 정보전달 및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인구통계학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다루었던 연구들은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자녀의 수, 교육수준, 직업, 거주 지역, 자가 보유 여부, 가계 소득 등이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김재호, 2013; 나혜림, 최현자, 2014; 백은영, 2012; 여윤경, 이남희, 2012; 이윤호, 2012; 이찬희, 정홍주, 2013; 정승훈, 임병인, 강성호, 2006; 주소현, 2011; 차경욱, 2015).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연금의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도 높아지고,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 연금의 가입률이 높았다. 대도시 보다는 비대 도시 거주자가 상대적인 소비성향이 낮아 노후준비에 대한 여유가 높기 때문에 지역 간 개인연금 가입률의 격차도 나타났다.

개인연금 가입에 있어 다양한 심리적인 요소들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선행연구들(이찬희, 정홍주, 2013; 이찬희, 전희주, 2016)에서는 자신이 장수할 가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장수에 따른 재정적 위협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지각할수록, 장수에 대한 주관적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금융관련 객관적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금융 및 보험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개인연금 가입 가능성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소현 (2011)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은퇴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할수록, 그리고 자신이 은퇴 후 희망하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가입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차경옥, 2015).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저조하다는 것은 인구통계학적 요소와 심리적인 요소만으로는 개인연금 가입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실질적으로 가입의도가 낮은 이유를 개인연금이 가진 대안이 특성에 기인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 경제적인 안정과 금전적 혜택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가입한다. 미래에 안정된 보장(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가입을 유지한 후,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즉, 장기간이 지나서 미래 자신의 은퇴 이후 시점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은 미래의 이득을 위한 현재 시점에서 진행하는 의사결정 즉,

‘시점간 선택(inter-temporal choice)’ 상황이다(구지연, 차경옥, 2015; 김희연, 김재휘, 2013; 김재휘, 서늘푸름, 2016; 백은영, 2011; 차경옥, 2015).

사람들은 사건의 결과나 혜택이 시간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나게 되면, 지연되는 시간만큼 미래에 얻게 될 결과나 혜택의 가치를 할인하여 평가하는 경향성이 있다. 특히 시간적 지연이 길어질수록 가치에 대한 할인은 더 크게 나타난다(Ariely & Loewenstein, 2000; Kim & Zauberman, 2009). 개인연금 역시 가입과 혜택(연금수령)사이의 장기간의 시간적 지연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사람들은 자신의 은퇴 후 미래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 시점에서 연금을 수령한다는 것은 혜택이 가진 실제 객관적인 크기만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러한 평가는 결국 현재시점에서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동일한 시간적 지연이 존재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시간적 지연을 짧게 평가하거나, 미래의 혜택을 얻을 시점이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 개인연금의 가입의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 자신의 은퇴 후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가깝게 그리고 짧게 지각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개인연금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접근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연금 가입에 있어 개인연금이 가진 시점간 선택 대안으로써의 특징인 시간적 지연에 대한 평가 및 지각의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자 한다. 시간지각에 대한 접근은 그동안 인구통계학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개인연금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기존의 접근

방식들의 실효성이 여전히 낮다는 점과 맞물려 개인연금 가입의 방해요인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간지각이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면, 시간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과 예측하는 사건이 가진 정서의 차별적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개인연금 가입의도를 높여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간지각이 실제 개인연금 가입 여부(가입/ 미가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연구 1), 시간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래예측방식과 예측한 정서 사건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연구 2).

이론적 배경

시점간 선택에서 시간지각의 중요성

시점간 선택 대안은 의사결정(선택)시점과 그 결과가 발생하는 시점이 분리되어 있으며, 의사결정과 그 결과 사이의 시간적 거리는 미래의 대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변화시킨다(Liberman & Trope, 1998; Trope & Liberman, 2000, 2003). 시간적 지연에 의한 사람들의 반응이 변하는 이유는 시간이라는 자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인한다.

시간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Jacoby, Szybillo, & Berning, 1976; Gino & Mogliner, 2014). 특히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자원은 다양하지만,

시간은 다른 자원에 비해 ‘자원의 희소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Garretson & Mauser, 1963). 예를 들어 돈과 같은 물질적인 자원은 자신이 노력을 한다면 더 축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으로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더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사람들이 시간 자원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시간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 자신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사고를 더 많이 함으로써, 다른 자원보다 시간자원을 통한 자신의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Gino & Mogliner, 2014).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시간은 다른 자원과 달리 한계효용이 증가(increasing marginal utility)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Festjens & Janiszewski, 2015).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재화이고 내가 더 가지고 싶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가질 수 있는 양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원과는 달리 체감한계효용을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이 투입해야 하는 시간의 양이 증가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시간의 한계효용 증가로 인해 그 대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Zauberman & Lynch, 2005; Festjens & Janiszewski, 2015). 이와 같은 할인 효용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이득(혜택)은 시간 지연으로 그 가치가 감소된다. 즉, 동일하게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획득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한다. 동일한 효용이라 할지라도, 미래에 얻는 것의 가치는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작게 지각된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즉시 얻을 수 있는 작은 보상을 지연된 큰 보상보다 더 선호한다. 결국 사람들

은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단기간의 효용을 주는 대안을 더 선택한다(부수현, 김재휘, 2013; Ariely & Loewenstein, 2000; Benzion, Rapoport, & Yagil, 1989; Frederick, Loewenstein, & O'donoghue, 2002; Green, Fristoe, & Myerson, 1994; Kim & Zauberman, 2009; Wittmann & Paulus, 2008).

장기적 목표행동이나 계획의 경우 역시, 현재의 자원 투입으로 그 결과가 미래에 나타나는 시점간 선택상황이다. 이 경우에도 현재 시작하는 시점과 미래에 결과를 획득하게 될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얼마나 짧게 지각하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사람들의 목표의 시행 의도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는 시간적 지연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거나 느리게 간다고 지각하게 되면 목표 추구를 방해하거나 목표를 덜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Sackett, Meyvis, Nelson, Converse와 Sackett (2010)의 연구에서는 과제에 관여하는 시간이 실제보다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끼면 과제의 쾌락적 가치가 증가하며, 시간이 실제보다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끼게 되면 과제의 쾌락적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장기간의 목표행동(다이어트 상황, 장기저축행동 등) 상황에 주목한 연구에서도 목표 수행 기간을 짧게 지각할수록 목표행동을 더 많이 채택하지만, 반대로 그 기간을 길게 지각하면 목표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고, 목표 채택이 줄어들거나 미루는 경향성이 나타났다(김정애, 김재휘, 2014; Ulkumen & Thomas, 2012; Zauberman, Kim, Malkoc, & Bettman, 2009). 따라서 시점간 선택 대안을 시작하는 현재시점과 결과를 얻는 미래시점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 간격에 대

한 지각(duration perception)은 대안의 실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시점간 선택대안으로써의 개인연금

은퇴 이후에 경제적 안정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개인연금이 강조되고 있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 다르게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불입액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계층인 자영업자, 소기업 근로자, 소득이 없는 계층의 노후보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확대 및 장기보유 가능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개인연금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구지연, 차경욱, 2015).

은퇴 이후 노후에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연금은 은퇴 후 소득 보장을 기대하며 현재의 효용을 미루는 의사결정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연금은 미래에 얻을 혜택을 위해 현재의 즉각적인 이득을 포기 혹은 지연하는 의사결정 대안이라는 점에서, 개인연금은 '시점간 선택'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가입 이후 일정시간이 지나야 결과(연금수령)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래에 얻게 될 혜택(수령액)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은 객관적인 가치보다 낮게 평가한다. 특히 지연된 보상을 얻기 위해 들여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얻게 되는 이득의 가치는 더 큰 폭으로 할인된다(Ariely & Loewenstein, 2000; Kim & Zauberman, 2009).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라면, 젊은 연령일수록 자신의 기대수명이 더 길어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은퇴 이

후 삶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때 들어가는 노후자금이 현재의 노년기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며, 개인연금에 일찍 가입하면 할수록 은퇴 이후에 더 많은 경제적 이득(더 많은 연금수령액)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의사결정 상황에서 시간적 지연이 존재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시간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미래에 얻게 될 가치가 과소평가되며, 은퇴 이후의 삶의 효용가치를 현재 의사결정 시점에서 고려하기는 쉽지 않다(김희연, 김재휘, 2013; 백은영, 2011; Benartzi & Thaler, 1995). 즉, 근시안적 편향(myopic bias)의 발생으로 먼 미래에 발생할 혜택 즉, 노후보장 금액 보다는 현재 투입되는 비용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개인연금의 가입의도 및 실제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을 이러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인연금 상품 역시 현재 가입하는 시점과 개인연금으로 인한 혜택을 받는 시점 사이에는 장기간의 시간 지연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개인연금의 특성상 더 어린 나이에 가입하고, 더 긴 시간 동안 상품의 가입을 유지할수록 미래에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시점간 선택 대안의 특성으로 인해 미래에 얻게 될 결과의 가치하락과 근시안적인 편향으로 인한 개인연금 가입의도가 감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개인연금에 가입을 고려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미래에 얻게 될 추상적인 이득 보다는 ‘내가 결과를 얻기 위해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혹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얻을 수 있는지’와 같은 ‘시간적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의 가입의도 및 실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하는 현재시점에서 미래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은퇴 이후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짧게 지각하고 자신의 은퇴 이후 시점까지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지각하는 것이 개인연금 가입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두 가지 예측방식에 따른 시간지각의 차이

시간적 지연이 있는 대안에 대한 의사결정 상황에서, 그 시간적 지연을 어떻게 프레이밍하느냐에 따라, 주어진 시간 간격에 대한 지각을 다르게 하고 실제 행동의도가 달라진다. 개인연금의 가입의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현재와 미래 시점 사이의 시간간격을 짧게 지각하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가깝게 판단하게 하기 위한 효과적인 프레이밍 방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현재에서 미래 동안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혹은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Trommsdorff, 1983). 이때 주어진 시간 간격을 어떤 방식으로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시간이라도 시간에 대한 길이는 다르게 평가된다. 사람들이 시간을 예측하는 것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즉, 어떤 방향(현재에서 미래, 미래에서 현재)으로 예측하는지에 따라 시간에 대한 평가, 사람들의 정서, 그리고 의사결정과 행동이 달라진다(Ebert, Gilbert, & Wilson, 2009; Fosters, Jens, Friedman, Ozelsel, & Markus, 2006).

미래예측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순향예측(forecasting)이며 다른 하나는 역향예측(backcasting)이다(Gilbert & Wilson, 2009; McInnis, Patrick, & Park, 2005). 순향예측이란, 상대적으로 오늘 혹은 가까운 미래 시

점부터 더 먼 미래 시점까지를 시간흐름에 따라서 예측을 하는 방식을 말하며, 역향예측은 이와 반대로 먼 미래 시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상대적으로 가까운 미래 시점 혹은 오늘까지와 같이 시간흐름의 반대순서로 예측하는 방식을 말한다. 두 가지 예측 방식은 예측할 때 활용하는 정보는 모두 동일하며, 예측이 이루어지는 시간(기간)도 동일하다. 그러나 예측하는 순서(방향)가 서로 반대라는 이 중요한 차이점이 동일한 시간간격에 대한 지각을 다르게 하며 궁극적으로 다양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요소가 된다.

순향예측과 역향예측이 활용하는 시간 간격 사이의 정보는 동일하더라도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반응들이 달라지는 것은 예측방향에 따라 사고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김희연, 김재휘, 2013; Holmberg & Robert, 2000; Lam & Buehler, 2009; Morris & Ward, 2005). 우선, 예측방식에 따라 동일한 간격에 대한 시간이 다르게 판단된다. 즉, 동일하게 주어진 객관적인 시간 간격을 순향으로 접근하는지 혹은 역향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은 달라진다. 자신의 과거를 현재시점에서 회상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한 집단은 과거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회상하도록 하고 다른 한 집단은 현재시점에서 과거시점으로 회상해보도록 했을 때, 동일한 시간 간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에서 과거로 회상하는 역향 조건에서 과거의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미래에 대한 예측상황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현재 시점에서(대학생) 자신의 은퇴 이후 노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까지를 순향과 역향으로 예측하게 했을 때, 순향보다는 역향예측 조건에서 먼 미래의 은퇴시기에 대한 시간

적 거리를 가깝게 지각하였다. 또한 순향 조건보다 역향 조건에서 미래에 발생할 사건이 현재의 자신의 기분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순향과 역향이라는 예측방향에 따라 시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또 다른 이유는 순향과 역향예측 방식이 동일한 시간적 간격이지만, 이 간격에 대한 정보량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김희연, 김재휘, 2013; Lam & Buehler, 2009). 즉, 사람들은 동일한 시간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흐른다는 신호가 많을수록 시간을 더 길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신의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많을수록(vs. 적을수록) 그 시기를 길게(vs. 짧게) 느낀다(Zauberman, Levav, Diehl, & Bhargava, 2010). 순향예측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주어진 시간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시간흐름에 따라 자신의 변화를 서사적인 형식(narrative form)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순향예측을 하는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민감하고 그 사건의 진전 과정에 초점을 두게 된다. 따라서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시간을 길게 평가하게 된다. 반면에 일반적인 시간 흐름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예측하는 역향예측에서는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고 변화하였는지 보다는 그 사건 자체 혹은 결과만을 떠올리게 된다(Holmberg & Robert 2000; Lam & Buehler 2009; Morris & Ward 2005). 결국 상대적으로 순향보다 역향예측조건에서 시간의 흐름에 대한 정보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들에서 순향예측보다는 역향예측이 주어진 시간적 간격을 짧게 지각하게 함으로써 개인연금의 가입의도에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예측하는 사건이 유발하는 정서에 따른 편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경험해보았던 사건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개인연금과 같은 시점간 선택 상황에서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점과 결과가 발생할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보다는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정보들을 주관적으로 상상하고 예측하면서 이를 판단에 중요한 정보로써 활용한다(Finucane, Alhakami, Slovic, & Johnson, 2000). 특히 사람들이 미래의 시간을 예측할 때, 그 시간적 지연 동안 발생 가능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조망하고 미래를 구성한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생일과 같은 개인적 사건, 선거와 같은 사회적 이슈, 혹은 어린이날과 같은 달력에 제시된 기념일 등의 시간적 랜드마크(temporal landmark)를 사용하여 삶을 분류하고 범주화하거나 조직화한다(Peetz & Wilson, 2013). 이러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어떤 정서 상태가 될 것인지 예측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사람들의 시간 지각 및 일상생활의 다양한 선택 영역(운동, 건강검진, 이혼 등)에 영향을 미친다(Gilbert, Pinel, Wilson, Blumberg, & Wheatley 1998; Rhodes & Strain 2008; Ruby, Dunn, Perrino, Gillis, & Viel 2011).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힘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래사건의 강도와 그 사건으로 인한 정

서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이 과대평가되는 편향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강력한 사건일수록 이에 따른 감정적인 결과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한다(Wilson, Wheatley, Meyers, Gilbert, & Axsom, 2000). 이러한 편향은 그 사건이 즐거운 것(긍정적)인지 혹은 유쾌하지 않은 것(부정적)인지와 관련된 사건이 유발하는 정서에 영향을 받는다(Gilbert et al., 1998).

부정적인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 대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즐거운 사건보다 부정적 사건의 지속 기간을 더 길게(과대평가) 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난다(Wilson, Wheatley, & Myers, 2000). Hoerger(2012)의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유인가의 사건(발렌타인데이 데이트를 함)을 예상한 피험자들보다 부정적인 사건(발렌타인데이 데이트 없음)을 예상한 피험자들이 실제 정서적 반응과 비교했을 때,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과대 예측하게 함으로써, ‘시간간격에 대한 편향(durability bias)’이 발생했다. 또한 실제 즐거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게 되면, 시간적 지연을 상대적으로 짧게 지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즐거운 마음상태를 점화한 조건의 피험자들은 10분간의 대기시간을 더 짧게 지각하였다(노태석, 남인우, 2016).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면, 사람들은 긍정적 감정보다 부정적 감정이 시간을 길게 판단하는데 상대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Baumeister, Heatherton, & Tice, 1994).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사람들이 죽음이나 불치병 같은 인생에서의 부정적 사건을 떠올리면, 손실 지각을 동반한 부정적 감정이 형성되고 이는 시간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지나가게, 혹은 얼마 없는 것으로 느끼게 하기도

한다(Liu & Aaker, 2008).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통해, 정서에 의한 시간지각의 편향은 어떠한 맥락에서 차별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는지를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순향예측보다 역향예측이 주어진 동일한 시간이라 하더라도 시간에 대한 상대적 판단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순향예측보다는 역향예측에서 사건자체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사건이 유발하는 정서적인 반응에 더 민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한다(Ebert, et al., 2009). 따라서 역향예측은 긍정이나 부정 사건에 대해 순향예측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반면에 순향예측의 경우 어떤 정서를 가진 사건을 예측했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효과는 다를 것이다. 순향예측은 역향예측에 비해 시간순서상으로 가까운 미래나 혹은 지금 현재를 준거점으로 하여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김희연, 김재휘, 2013; 한광석, 진홍근, 2013; Tope & Liberman, 2003), 하위수준의 사고와 연결 지을 수 있다.

Tope과 Liberman(2003)에 따르면, 시간적으로 먼 미래를 제시할수록 대상을 추상적이고, 단순하며, 구조화되고 일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목적과 연결 지어 판단하거나 대상이 가진 잠재적 이득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성이 있다. 반면 시간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판단대상을 구체적이고, 부차적인 속성에 기반을 두거나 이득(긍정적 결과)보다는 손실(부정적 결과)에 더 가중치를 두어 판단한다. 따라서 순향예측은 역향예측에 비해 하위수준에서 사건을 떠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건을 예상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사건을 예상하는 것이 현재에서 미래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좀 더 가깝게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Wang, Hong 및 Zhou(2017)의 연구에

따르면, 하위수준에서 시간간격에 대한 사건을 떠올릴 때, 이 사건에 대한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이나 진단가능성(diagnosticity)이 낮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주어진 시간을 더 길게 지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순향예측의 경우, 긍정적인 사건보다는 부정적인 사건을 예상하는 것이 인지적으로 더 접근가능하고 진단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지각하게 할 것이며, 이 때 개인연금의 가입의도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예측방식에 따른 시간지각과 개인연금의 가입의도의 차이는 어떤 정서를 유발하는 사건을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조절될 수 있다.

연구개요 및 가설설정

연구개요

연구 1에서는 다른 대안들과 달리 개인연금 대안 자체가 가지는 시점간 선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간적 지연에 대한 평가와 판단(시간지각)이 개인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1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퇴 이후 개인연금의 혜택을 받는 시점까지의 시간지각이 실제 개인연금 가입 여부(가입/ 미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가설 1).

연구 2에서는 개인연금과 같은 시점간 선택 상황에서 시간적 지연을 짧게 지각하는 것은 개인연금에 대한 가치와 미래에 얻게 되는 연금혜택의 가치가 할인되는 것을 줄여주고, 그

결과 개인연금의 가입률이나 가입의도를 높여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개인연금의 가입의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래의 은퇴 후의 시점(개인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을 가깝게 지각하게 해주는 방안으로 자신의 미래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망하는지 즉,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에 따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조망할 때,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미래를 조망하는데, 이때 예상하는 사건이 어떠한 정서를 유발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의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자신의 미래(은퇴시점까지)를 예측하는 방식과 예측하는 정서적 사건이 개인연금의 가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가설2, 가설 3). 또한 예측 방식과 정서 사건에 따른 개인연금의 가입의도는 시간지각이 매개된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가설4)함으로써, 개인연금 가입에서 시간지각의 중요성, 그리고 예측방식과 정서 사건의 효과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가설 1. 시간지각은 개인연금 가입여부와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즉, 은퇴 이후 시점(개인연금 수령가능 시기)에 대해 짧게 지각할수록 개인연금 가입을 더 많이 할 것이다.

가설 2. 순향예측보다 역향예측 조건에서 개인연금의 가입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가설 3. 예측방식에 따른 가입의도의 차이는 예상하는 사건의 정서에 따라 조절 될 것이다. 특히, 순향예측 조건에서 긍정적인 정서

보다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사건을 예측할 때 개인연금의 가입의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4. 시간지각은 예측방식과 정서 사건이 개인연금의 가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된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 1

방법

조사 설계 및 피험자

연구 1은 조사회사 매트릭스에 의뢰하여 2017년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202명(남자113명, 여자 8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개인연금 가입이 가능한 최소연령을 제한하여 만 19세 이상을 모집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19~59세로 분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40.12세였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인 요소들을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취업상태, 직업, 월평균소득, 거주 지역을 조사하였다.

전체 202명중 114명은 기혼(미혼 58명)으로 전체 응답의 71.3%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부터 대학 졸업 이상에 분포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78.2%는 대학졸업자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분포하였다. 응답자들의 직업군을 학생, 전문 관리직, 자영업, 사무직, 전업주부, 서비스판매직, 기술기능직, 기타 직업의 8가지로 구분하였으며, 학생은 2%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업군이었으며, 사무직이 60.9%로 가장 많은 분포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
성별	남	113	55.9
	여	89	44.1
연령 (연령대로 재분류함)	10대	1	.5
	20대	24	11.9
	30대	69	34.2
	40대	78	38.6
	50대	30	14.9
결혼상태	미혼	144	71.3
	기혼	58	28.7
학력	고졸이하	1	.5
	고졸	25	12.4
	대학교재학	3	1.5
	대졸	158	78.2
	대졸이상	15	7.4
취업상태	정규직	163	80.7
	비정규직 (아르바이트포함)	17	8.4
	미취업	18	8.9
	기타	4	2.0
직업	학생	4	2.0
	전문-관리직	20	9.9
	자영업	12	5.9
	사무직	123	60.9
	전업주부	17	8.4
	서비스-판매직	8	4.0
	기술-기능직	10	5.0
	기타	8	4.0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계속)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
월평균 소득	30만미만	4	2.0
	30-50미만	0	0
	50-70	2	1.0
	70-100	2	1.0
	100-130	5	2.5
	130-150	5	2.5
	150-170	7	3.5
	170-200	9	4.5
	200-250	27	13.4
	250-270	13	6.4
거주지역	270-300	12	5.9
	300-330	14	6.9
	330-360	13	6.4
개인연금 가입여부	360-390	16	7.9
	390만 원 이상	73	36.1
	서울	99	49.0
개인연금 가입여부	광역도시	50	24.8
	중소도시(읍/면)	53	26.2
개인연금 가입여부	가입	119	58.9
	미가입	83	41.1

를 보였다. 응답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30만원 미만부터 390만 원 이상까지 범주를 구분하여 확인한 결과 200~250만원의 월평균 소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은 서울 49%, 광역도시 24.8% 중소도시 26.2%의 분포로 나타났다. 위에 제시한 응답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정보는 표 1에 기술하였다.

측정변수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었던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으로는 성별(이찬희, 정홍주, 2013; 정승훈, 임병인, 강성호, 2006; 차경욱, 2015), 연령(나혜림, 최현자, 2014; 이윤호, 2012; 정승훈 외, 2006; 정승훈, 임병인, 2008; 주소현, 2011; 차경욱, 2015), 결혼여부(혼인상태)(나혜림, 최현자, 2014; 백은영, 2012; 여윤경, 이남희, 2012; 이찬희, 전홍주, 2013; 주소현, 2011; 차경욱, 2015), 학력(교육수준)(김재호, 2013; 나혜림, 최현자, 2014; 백은영, 2012; 여윤경, 이남희, 2012; 정승훈, 임병인, 강성호, 2006; 차경욱, 2015), 직업(전승훈, 임병인, 2008; 여윤경, 이남희, 2012; 백은영, 2012; 차경욱, 2015), 월평균 소득(주소현, 2011; 차경욱, 2015), 주거지역(김재호, 2013; 여윤경, 이남희, 2012; 차경욱, 2015)의 요인들을 선정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자신들에 연구에 맞추어 몇 가지 요소들을 추가하기도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업과 거주 지역을 제외한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했던 부분들을 인구통계학적인 요소로 정의하고 이를 확인하는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심리적인 요인은 연금이해력, 노후에 대한 인식, 위험투자성향 그리고 시간지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금이해력을 선행연구들을 인용하여 ‘개인연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정도’, ‘개인연금 상품에 내용에 대한 해석능력’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였다(김재호, 2013; 백은영, 2012, 여윤경, 이남희, 2012; 정승훈, 임병인, 강성호, 2006). 노후에 대한 인식은 선행연구에서는 장수가능성, 장수에 대한 감정, 노후 대처 효능감, 은퇴 후 시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 등의 내용으로 확인하였다(이찬희, 정홍주, 2013; 이찬희, 전

희주, 2016). 본 연구에서는 노후에 대한 인식을 ‘자신의 은퇴 이후의 노후의 삶을 얼마나 긍정적인 시기로 바라보는지’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준비 정도, 부정적 감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평소 자신의 위험투자성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이찬희, 전희주, 2016; 장현주, 최현자, 2012; 차경욱, 정다은, 2013).

마지막으로 연구 1에서는 시간지각이라는 심리적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시간지각에 대한 정의와 문항구성에 있어 시간지각 혹은 시간에 대한 예측을 개념화하여 측정된 선행연구의 내용을 참조하였다(Gable & Poole, 2012; Kim & Zauberman, 2009; Tsai & Zhao, 2011; Ulkiumen & Thomas, 2013; Zauberman et al., 2009). 따라서 시간지각을 현재시점에서 자신의 미래 즉, 은퇴 이후 노후 시기 및 자신이 연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을 얼마나 가깝게 혹은 멀게 느끼는지 여부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문항들은 개인연금 맥락을 바탕으로 개인연금의 유지기간, 개인연금의 혜택 받는 시점과 자신의 은퇴 이후의 미래 시점까지 거리의 관점에서 ‘가깝다-멀다’, 시간의 속도 측면에서 ‘빠르다-멀다’ 등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연구 1에서는 명목척도를 제외한 제시된 모든 측정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아니다, 3=보통,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측정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적재량과 공통성은 .50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만을 추출하였고, 설명력은 6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값을 충족하는 문항들을 대상으로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주성분 분석을 통한 배리맥스 회전방식으로

표 2. 심리적 요인의 측정문항에 대한 요인분석결과값 및 신뢰도값

변수	측정문항	요인 적재량	공통성	평균	분산 설명력	신뢰도
연금 이해력	개인연금에 대한 상품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편이다	.915	.838	3.55	83.75	.804
	개인연금에 대한 상품정보를 이해하는 편이다	.915	.837	3.68		
투자성향	나는 고수익과 고위험을 가진 투자대안을 선택하는 편이다	.671	.805	2.71	78.36	.628
	투자는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이 우선한다(역)	.681	.776	2.21		
	이익이 높더라도 투자방법이 위험하면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역)	.660	.765	2.35		
	나는 필요하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고 싶다	.747	.789	2.75		
노후에 대한 인식	노후는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776	.602	3.46	66.60	.749
	은퇴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편이다	.861	.741	3.18		
	나의 노후는 전반적으로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809	.654	3.33		
시간 지각	개인연금은 납입부터 수령기간이 길게 느껴진다(역)	.739	.682	3.34	76.26	.858
	개인연금은 납입부터 수령기간인 그리 길지 않다고 생각한다	.746	.759	3.26		
	개인연금의 납입 기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것 같다	.781	.722	3.67		
	미래(노후)에 개인연금의 수령 시기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것이다	.743	.838	3.74		
	개인연금의 가입부터 수령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766	.810	3.76		
	나의 미래(노후)는 그리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773	.824	3.07		
	나의 미래(노후)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것이다	.628	.745	3.74		
	나의 미래(노후)는 금방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634	.722	3.63		

요인분석을 한 결과, 각 문항들의 요인 적재량이 .60을 넘었고, 공통성 역시 .50을 넘었으므로 측정문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신뢰도 값 역시 위험투자성향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을 가지지만 .60이상의 값을 가지고, 나머지 변수는 .70이상의 값을 가짐으로 측정문항을 분석에 사용하는데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측정문항내용, 요인분석결과값 및 신뢰도에 대한 정보는 표 2에 기술하였다.

결 과

개인연금 실제 가입여부에 시간지각의 영향력 검증

가설 1은 개인연금의 가입여부에 시간지각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즉, 다른 요인들보다 시간지각요소가 실제 가입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연금 가입과 미가입(준거집단, 0으로 설정)에 인구통계학적 요소(나이, 학력, 성별, 결혼유무, 월평균소득)와 심리적 요소(위험투자성향, 노후에 대한 인식, 연금이해력, 시간지각)중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얼마큼의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지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총 202명의 응답자들 중 가입자는 119명, 미가입자는 83명이었다. 이를 대상으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한 결과, 본 연구모형은 -2 Log 우도값은 216.194이었으며, 이는 유의확률 .001 이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값이었다. 또한 모형의 χ^2 값은 57.387이었으며, p 값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왔다. 개인연금의 가입자는 82.4%이며, 모형의 정확도는 72.8%이다. 현재 개인연금 가입상태와 미가입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결혼유무, 월평균소득, 노후에 대한 인식, 시간지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에서 결혼유무와 월평균 소득이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미혼자보다 기혼자일 때, 개인연금 가

입을 확률은 2.459배 증가한다. 또한 월평균소득이 증가할수록 개인연금 가입확률은 1.138배 증가한다. 심리적 요인에서는 노후에 대한 인식과 시간지각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개인연금에 가입할 확률은 1.181배 증가하며, 자신의 은퇴 후(개인연금 수령시기) 미래를 가깝고 금방 다

표 3. 분류정확도

	예측		분류정확 %
	가입여부		
	미가입	가입	
미가입	49	34	59.0
가입	21	99	82.4
전체			72.8

표 4.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괄호 안은 준거집단)			B	SE	Wald	자유도	p	Exp(B)
인구 통계학적 요인	나이		-.043	.024	3.192	1	.074	.958
	학력(고졸이하)		.459	.249	3.391	1	.066	1.583
	성별 (여자)	남자	.340	.350	.947	1	.331	1.405
	결혼 (미혼)	기혼	.900	.446	4.075	1	.044	2.459
	월평균소득		.129	.057	5.159	1	.023	1.138
심리적 요인	위험투자성향		-.090	.250	.128	1	.720	.914
	노후에 대한 인식		.594	.282	4.435	1	.035	1.810
	연금이해력		.208	.269	.598	1	.439	1.231
	시간지각		1.114	.423	6.938	1	.008	3.048
상수항			-8.399	2.053	16.733	1	.000	.000
Chi-Square					57.387			.000
-2 Log Likelihood					216.194			< .001

가을 것이라고 느낄수록 개인연금에 가입할 확률은 3.048배 증가하는 것을 밝혀졌다. 연구 1의 결과에 따르면 학력은 실제 개인연금의 가입여부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님을 분석결과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연금에 대한 이해력은 실제 가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1에서 개인연금 가입과 미가입 여부에 시간지각이 가장 예측력이 높은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가설 1이 지지됨으로써, 현재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과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여부와 월평균소득 그리고 노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시간지각이라는 심리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분류정확도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값은 표 3과 표 4에 기술하였다.

연구 1 결론

연구 1은 실제 개인연금에 가입과 미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혼여부(기혼자), 월평균소득(소득이 높아질수록)이 실제 가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심리적인 요소로는 노후에 대한 인식과 시간지각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즉 노후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할수록, 그리고 그 노후 시점이 가까이 있고,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개인연금에 가입을 더 많이 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지각이라는 요인이 실제 개인연금 가입행위에 영향을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따라서 연구

1에서는 개인연금 가입과 가입의도에 있어 시간지각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연구 2에서 어떻게 하면 미래의 시간을 가까이 있는 것처럼, 혹은 미래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시간지각에 변화를 줄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2

방 법

실험설계 및 피험자

연구 2는 서울과 경북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24명(남자 107명, 여자 113명, 결측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령의 분포는 만 18 ~ 27세였으며, 평균연령은 21.48세였다. 연구 2는 2(예측방식: 순향, 역향) x 2(정서 사건: 긍정적 사건, 부정적 사건)의 요인설계로 진행되었으며, 피험자들은 각 조건에 무선할당 되었다. 종속변인으로는 개인연금의 가입의도, 매개변인으로는 시간지각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예측방식과 정서 사건이 개인연금 가입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시간지각이 매개된 조절역할을 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8을 적용하였다(Preacher & Hayes, 2004).

실험절차와 실험 자극

처치가 진행되기 전에 피험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식하는 노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연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공통된 내

용을 제시하였다. 이는 연구 1에서 노후에 대한 인식이 개인연금 가입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밝혀지면서, 개인연금 가입을 통해 노후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제시하였다. 다음 단락에는 ‘현재 당신 연령대가 놓인 전반적인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2016년 금융감독원 기준 1위 보험사의 상품으로, 최소 20년 동안 매달 5만원씩 납부해야 하는 상품]을 추천한다’는 문구와 함께 가상의 개인연금 상품을 제시하였다. 스크립트를 제시 후, 피험자들에게 스크립트를 꼼꼼히 읽고 다음의 각각의 처치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예측방식의 처치는 Festjens와 Janiszewski (2015)의 연구에서 순향예측과 역향예측을 2, 4, 8, 16, 24, 32년을 오름(내림)차순으로 제시한 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시간을 순향, 역향으로 예측하도록 하였다. 즉, 현재를 기준으로 2년, 4년, 8년, 16년, 24년, 32년 뒤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을 과제로 주었다. 이 때 순향예측은 2년 뒤부터 32년까지 예측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역향예측은 32년 뒤의 미래부터 2년 뒤의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처치하였다. 정서 사건을 처치하기 위해 각각의 미래 시점에서 당시에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사건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모든 처치가 끝난 이 후, 피험자들에게 스크립트에서 제시되었던 개인연금상품에 대한 가입의도를 측정하였다. 가입의도는 ‘추천 받은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추천 받은 개인연금 상품에 대해 더 많은 설명을 들어볼 의향이 있다’, ‘추천 받은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 ‘추천 받은 개인연금 상품을 친구에게도 권유할 의사가 있다’

등과 같은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alpha = .837$). 또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간 지각은 ‘나의 노후는 금방 다가올 것 같다’, ‘추천 받은 개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미래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것 같다’, ‘개인연금을 수령하는 노후 시기는 생각보다 빨리다가 올 것 같다’ 등의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alpha = .806$). 조작점검 문항과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문항들을 마지막으로 물어보았다.

연구 2에서는 아무런 처치를 받지 않은 순수 통제집단 10명을 추가 모집하였다. 이들에게는 노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개인연금에 대한 정보가 담긴 동일한 스크립트를 제시하고, 동일한 가상의 개인연금 상품을 제시한 뒤, 아무런 처치과제 수행 없이 바로 제시된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가입의도를 측정하였다. 통제집단의 가입의도 값은 개인연금에 대한 기저선 역할뿐만 아니라 처치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2 결과

조작점검

예측 방식에 대한 조작점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순향예측을 처치 받은 집단은 역향예측 집단보다 자신의 미래를 시간적 순서로 예측했다고 응답($M_{\text{순향}}=3.79$, $M_{\text{역향}}=2.09$, $t=12.17$, $p=.00$)하였으며, 역향예측 집단은 순향예측의 처치를 받은 집단보다 자신의 미래를 시간의 반대순서로 생각해보았다고 응답하였다($M_{\text{순향}}=2.23$, $M_{\text{역향}}=3.79$, $t=-11.39$, $p=.00$). 정서 사건 처치에 대한 조작점검 역시 성공적

으로 이루어졌다. 긍정적인 사건을 떠올려보도록 처치를 받은 집단은 부정적인 사건을 떠올리도록 처치를 받은 집단보다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다($M_{\text{긍정}}=3.66$, $M_{\text{부정}}=1.82$, $t=15.87$, $p=.00$). 반면에 부정적인 사건을 떠올려보도록 처치를 받은 집단은 긍정적인 사건을 떠올리도록 처치를 받은 집단보다 더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M_{\text{긍정}}=1.81$, $M_{\text{부정}}=3.86$, $t=-17.16$, $p=.00$). 또한 상상한 미래의 사건이 실제 얼마나 일반적인 결과(나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발생가능)라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분석결과 집단간 상상한 사건이 일반적이라고 지각하는 값의 차이가 없었다($M_{\text{긍정}}=3.64$, $M_{\text{부정}}=3.66$, $t=-.169$, $p=.86$). 따라서 피험자들이 떠올린 사건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주어진 연령대에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을 예측하였기 때문에, 떠올린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과 같은 다른 요인의 의한 효과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예측방식과 정서 사건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의도

추천 받은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가입의도에 예측방식과 정서 사건이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예측방식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미래를 순향으로 예측했을 때보다 역향의 방식으로 예측했을 때, 제시한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가입의도가 높게 나타났다($M_{\text{순향}}=3.32$, $M_{\text{역향}}=3.53$, $F(1, 220)=7.024$, $p=.009$). 이 값은 아무런 처치를 받지 않은 통제집단의 개인연금 상품의 가입의도($M_{\text{통제}}=2.96$)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이다($F(4, 233)=5.52$, $p=.000$).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또한 예측방식과 정서 사건에 대한 상호작용효과($F(1, 220)=5.860$, $p=.016$)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에 정서 사건에 따른 가입의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 220)=.331$, $p=.565$). 구체적으로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역향으로 자신의 미래 사건들을 예측할 때에는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는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는 사건을 떠올리는 것보다 추천 받은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가입의도가 높게 나타났다($M_{\text{역향*긍정사건}}=3.60$, $M_{\text{역향*부정사건}}=3.45$). 반면에 순향으로 예측한 조건에서는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는 사건을 떠올리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는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추천 받은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가입의도가 높게 나타났다($M_{\text{순향*긍정사건}}=3.20$, $M_{\text{순향*부정사건}}=3.43$). 표 5, 표 6과 그림 1에 각 조건별 개인연금 상품의 가입의도의 평균값과 이원변량

표 5. 예측방식과 정서 사건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의도의 평균값

		미래예측방식		전체
		순향예측	역향예측	
정서 사건	긍정적 사건	3.20(.54)	3.60(.60)	3.42(.60)
	부정적 사건	3.43(.67)	3.45(.51)	3.44(.59)
전체		3.32(.62)	3.53(.56)	3.43(.60)

표 6. 예측방식과 정서 사건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의도의 분산분석 결과표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p
예측방식(A)	2.442	1	2.442	7.024	.009
정서 사건(B)	.115	1	.115	.331	.565
(A) X (B)	2.038	1	2.038	5.860	.016
오차	76.479	220	.348		
수정합계	81.003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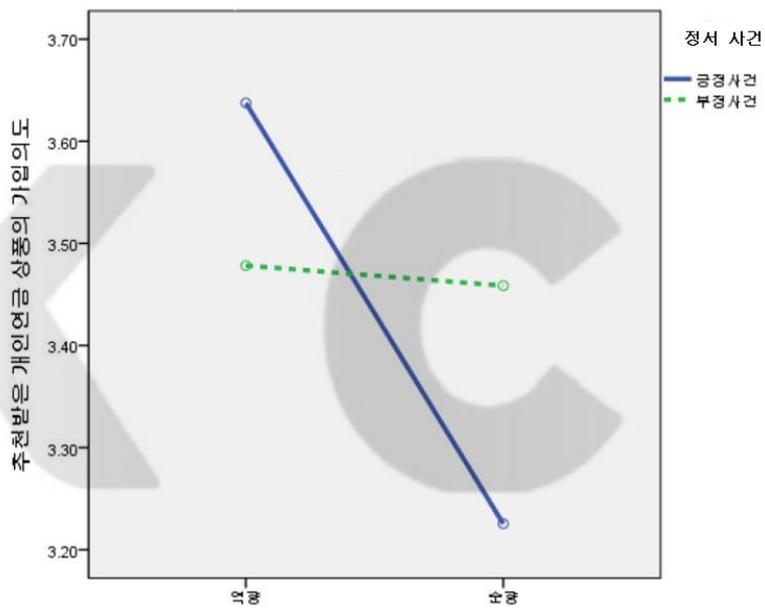


그림 1. 예측방식과 정서 사건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의도

표 7. 예측방식과 정서 사건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의도의 대조분석 결과

예측방식	정서 사건		평균(표준오차)		F	p
순향	긍정	부정	-.237	(.11)	4.26	.040
	부정	긍정	.237	(.11)		
역향	긍정	부정	.146	(.10)	1.79	.181
	부정	긍정	-.146	(.10)		

분석 결과값을 제시하였다.

상호작용에 대한 대조분석 결과, 역향예측 조건에서는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사건과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사건들 사이의 개인연금의 가입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1, 220) = 1.79, p = .181$). 하지만 순향예측의 경우,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 사건보다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 사건을 예측한 경우, 개인연금의 가입의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220) = 4.26, p = .040$).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대조분석의 구체적인 값은 표 7에 제시하였다.

예측방식과 정서 사건에 따른 시간지각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우선 예측방식과 정서 사건이 시간지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예측방식과 정서 사건이 개인연금 가입의도에 미치는 효과와 마찬가지로 예측방식에 따른 주효과($M_{\text{순향}} = 2.77, M_{\text{역향}} = 2.98, F(1, 220) = 5.439, p = .021$)와 예측방식과 정서 사건에 따른 상호작용($F(1, 220) = 4.798, p = .030$)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시간지각은 가입의도 결과와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냈다.

예측방식과 정서 사건에 따른 분산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연금 상품의 가입의도에 대한 예측 방식과 정서 사건의 영향력이 시간지각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8을 적용하였다. 종속변인(Y)에는 개인연금의 가입의도를 투입하고, 독립변수(X)에는 예측방식을 투입했으며, 정서 사건은 조절변수(W)로, 시간지각을 매개변수(M)로 투입하고, 10000개의 리샘플로 부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다(Preacher & Hayes,

2004). 분석 결과, 개인연금 상품의 가입의도에 대한 예측방식과 정서 사건의 영향력은 시간지각의 매개된 조절효과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2 = .27, F = 20.75, p = .000$, 예측방향(a) = $-.47$, 정서 사건(b) = $-.33, a \times b = .23, 95\% \text{ CI: } .022 \sim .357$). 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연구 2 결론

연구 2는 예측방식이 개인연금의 가입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 때 예상하는 사건이 유발하는 정서에 의해 예측방식의 효과가 조절된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효과는 시간지각이 매개하여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순향으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역향으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는 조건에서 개인연금의 가입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부터 미래 은퇴 후 개인연금을 수령하는 시간을 가깝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측방식과 정서 사건에 따른 가입의도의 상호작용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가설 2와 가설 3이 지지되었다.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대조 분석결과 순향예측의 경우 긍정적인 정서보다는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미래 사건들을 예측했을 때 개인연금의 가입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역향예측의 경우에는 정서 사건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또한 통제집단의 가입의도의 값과 비교했을 때, 통제집단의 가입의도보다 처치를 받은 집단들의 개인연금 가입의도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나타냈기 때문에, 예측방식과 정서 사건을 처치하는 것

은 개인연금 가입의도를 높여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입의도에 예측방식과 정서 사건이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는 시간지각이 매개하여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가설 4가 지지되었다. 연구 2의 결과를 통해 자신의 미래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혹은 현재 선택한 대안의 결과를 받을 시점이 빨리 다가올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개인연금의 가입의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종합논의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은퇴 이후에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개인연금의 가입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기존 연구들이 제안했던 인구통계학적인 요소와 기존의 심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간지각(은퇴 후 시점 및 개인연금 수령가능 시기를 얼마나 가깝게,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여부)이 개인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개인연금이라는 대안 자체가 가지는 시간간 선택이라는 속성에서 시간적 지연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실제로 현재 개인연금 가입 여부(가입/ 미가입)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인구통계학적인 요소로는 기혼자이거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연금에 가입여부를 유의미하게 예측해주었으며, 심리적인 요소로는 노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은퇴 이후 자신의 노년기가 가까이 있다고 지

각하는 것이 개인연금의 실제 가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밝혀졌는데, 특히 시간지각이 실제 개인연금 가입여부에 가장 영향력(예측력)이 높은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1의 결과는 개인연금의 가입을 위해 선행연구들이 제안했던 요소들뿐만 아니라 시간지각이라는 새로운 요소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미래를 조망하는 방식으로 예측방식(순향과 역향)의 효과와 예측할 때, 어떤 정서를 내포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자신의 미래를 조망하는가에 따라 시간지각이 달라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연금의 가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순향으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역향으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는 조건에서 개인연금의 가입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역향 예측 조건에서 현재부터 미래 은퇴 후 개인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가깝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향조건에서는 긍정적인 사건보다는 부정적인 사건을 예상하는 조건에서 가입의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효과는 시간지각이 매개하여 조절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시간적 요소가 사람들의 의사결정 상황에서 중요한 요소일 것이며, 특히 가입과 가입으로 인한 혜택사이에 장기간의 시간적 지연이 존재하는 개인연금 가입 상황에서 더욱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가정하였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개인연금 가입에 있어서 선행연구들이 중요하게 보았던 인구통계학적인 요소와 심리적인 요소들의 영향력보다는 시간지각이라는 요소가 개인연금의 가입의도와 가입여부에 더 높은 설명력과 예측력

을 가진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시점간 선택 대안으로써 개인연금을 접근하였다는 것 또한 의의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성별 및 연령과 같은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제시되었던 요소들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는 점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의 사람들이 노년기에 대한 준비를 남녀 노소 상관없이 인지하고 있다는 사회적 변화로도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의 가입을 권유하는 커뮤니케이션 장면에서의 대안의 특성에 기반을 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의의를 가진다. 특히 예측방식과 정서사건이 사람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간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무자들이 적용할 수 있는 설득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연금 가입에 있어서 개인연금 상품(연금보험 혹은 연금 저축)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 혹은 금융권에서는 인구통계학적인 요소나 그 외 다른 심리적 요소들보다 시간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전달할 것인가에 더 초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 역시 몇 가지 추후 논의 되어야 할 한계점과 이를 바탕으로 보완된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연구 1은 선행연구들이 이미 제안했던 일반화할 수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살펴보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각 요소들 간의 다이내믹스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교육수준과 소득간의 관계 그리고 교육수준과 연금에 대한 이해력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도 높아지고,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개

인연금의 가입률이 높아질 수 있다(김재호, 2013; 백은영, 2012, 여운경, 이남희, 2012; 정승훈, 임병인, 강성호, 2006). 또한 직업과 교육수준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고위직, 전문가 직업군에 종사할 가능성도 많아지고, 가용자본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개인연금 가입률이 높은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전승훈, 임병인, 2008; 여운경, 이남희, 2012; 백은영, 2012). 따라서 연구 1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각각의 요소들을 제시하였고, 시간지각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제안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각 요소들 간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보완된 예측변수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연구 2에서는 순향과 역향예측이 궁극적으로 개인연금 가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안적인 설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간적인 흐름대로 진행되는 순향예측 보다 역향예측은 시간의 순서를 거스르기 때문에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을 필요로 할 수 있으며, 각각의 예측방식에 따라서 특정 정서를 가진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인지적 자원의 비대칭성 혹은 인지적 노력의 차이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표본의 문제점과 측정적도의 한계점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 1과는 달리, 연구 2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가입에 대한 일반화를 설명하기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연구 1을 통해 개인연금의 가입과 관련하여 나이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하였지만, 결혼여부와 월평균소득이 실제 가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밝혀지면서,

나이의 영향력을 모두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실제 실험을 진행한 피험자들 대학생 표본이었다는 점은 일반화에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가입의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개인연금의 두 가지 종류인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 점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제도, 상품의 구체적 내용, 세제 혜택 등의 요소들이 다르며, 펀드나 변액보험의 형태는 투자의 성격이 강한 상품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내용들과는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는 각각의 상품들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이때 시간적 요소가 미치는 효과들을 살펴본다면,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시간적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계요소들을 발견함으로써 학문적 의의와 실무적 의의를 가진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2에서는 예측방식과 정서 사건에 따른 집단간 개인연금 가입의도의 평균값이 3점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분명 이 값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고, 아무런 처치를 받지 않았던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에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값을 도출하여 예측방식과 정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개인연금 가입의도에 태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의 변화의 폭이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크지 않았다. 이는 개인연금이 가입의도를 다루었던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것처

럼 개인연금이라는 상품 자체가 한 순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 심사숙고해야 할 측면들이 존재하는 대안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실험 상황에서 가입의도에 대한 높은 평균치를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여진다(김재휘, 서늘푸름, 2016; 김희연, 김재휘, 2013).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연금이라는 대안이 가진 특성을 고려하여, 가입의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안적인 측정항목과 척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위에 제시한 추후논의점이 보완된다면, 시간지각이 매개되어 영향을 미치는 영역 즉, 개인연금 상황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목표행동 및 사전예약판매와 같은 시간적 지연이 존재하는 소비상황에 적용하여 확장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옥, & 황혜원 (2009). 직업활동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4(단일호), 89-109.
- 구지연, & 차경옥 (2015). 가계특성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여부와 가입유형 비교.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1(1), 97-120.
- 김도환 (2001).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 자아 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13(단일호), 113-144.
- 김수완, 김순옥 (2007).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구축 전망-사적연금의 수급자 수 전망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3(2), 271-295.
- 김영숙, & 서경현 (2002). 생활환경에 따른 한국노인들의 생활만족과 우울수준. *노인복지연구*, 18, 273-290.

- 김재호 (2013). 개인연금 가입결정과 유지요인에 관한 분석-기업의 개인연금보험료지원 효과를 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73(단일호), 3-29.
- 김정애, 김재휘 (2014). 미래 사건의 제시방식과 사건들의 특성이 자기개발 목표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광고홍보학보*, 16(3), 64-94.
- 김희연, 김재휘 (2013). 미래에 대한 예측 방식과 자기 조절 모드가 연금 보험 가입 의도에 미치는 효과. *소비자학연구*, 24(3), 51-73.
- 나혜림, 최현자 (2014). 개별연금 가입여부 및 다층연금체계 가입구조의 결정요인 분석. *Financial Planning Review*, 7(4), 43-72.
- 노태석, 남인우 (2016). 고객의 이용 전 마음가짐과 대기 전념물의 콘텐츠가 지각된 대기시간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관리연구*, 21(4), 1-22.
- 문용필 (2012). 중고령자의 개인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노인복지연구*, 58(단일호), 89-110.
- 백은영 (2012). 개인연금 가입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8(3), 63-86.
- 부수현, 김재휘 (2013). 의사결정 시점에 따른 메시지 적합성이 예방행동 의도에 미치는 효과. *광고학연구*, 24(1), 7-30.
- 오진호, 임두빈, & 전용일 (2013). 연금연구: 사적연금 적립금 추이전망. *연금연구*, 3(1), 95-111.
- 여윤경, 이남희 (2012). 개인연금자산의 수요와 적정성에 관한 분석. *보험금융연구*, 68(단일호), 63-93.
- 윤명숙, 이묘숙 (2012). 노인의 경제상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2, 397-413.
- 이용하 (2011). 다층연금체계 구축: 내실화 방안을 중심으로. *연금연구*, 1(2), 1-27.
- 이운호 (2012). 개인연금수요의 구조분석. *대한경영학회지*, 25(1), 195-210.
- 이찬희, 정홍주 (2013). 개인연금 가입과 선호의 결정요인분석: 인지요인, 정서요인, 금융이해력, 신뢰, 위험감수성향을 중심으로. *금융연구*, 27(4), 25-51.
- 전승훈, 임병인, 강성호 (2006). 개인연금 가입 결정 및 가입상태 변화 분석. *보험개발연구*, 17(1), 137-168.
- 정운영, 박주영 (2015). 심리적 특성과 보험관련행동. *소비문화연구*, 18(1), 179-196.
- 조혜진, 최현자, 박주영 (2014). 금융소비자의 자산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비교 및 유형화 연구. *소비자학연구*, 25(1), 173-198.
- 주소현 (2011). 개인연금 보유 및 연금불입액의 관련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22(3), 183-206.
- 차경욱 (2015). 개인연금 가입결정과 납입액 규모 및 가입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inancial Planning Review*, 8(2), 89-122.
- 통계청 (2015). 2015년 고령자통계, 2015. 09. 24. 보도자료.
- Ariely, D., & Loewenstein, G. (2000). When does duration matter in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29(4), 508-523.
- Baker, J., & Cameron, M. (1996). The effects of the service environment on affect and

- consumer perception of waiting time: An integrative review and research proposition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4(4), 338-349.
- Bashir, Y., Wilson, E., Lockwood, P., Chasteen, L., & Alisat, S. (2014). The Time for Action is Now: Subjective Temporal Proximity Enhances Pursuit of Remote-Future Goals. *Social Cognition*, 32(1), 83-93.
- Benzion, U., Rapoport, A., & Yagil, J. (1989). Discount rates inferred from decisions: An experimental study. *Management science*, 35(3), 270-284.
- Carver, S., & Scheier, F. (2000). On the structure of behavioral self-regulation. *Handbook of self-regulation*, 41-84.
- Cohen, B., & Andrade, B. (2004). Affective intuition and task-contingent affect regul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1(2), 358-367.
- Conti, R. (2001). Time flies: Investigating the connection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the experience of time. *Journal of personality*, 69(1), 1-26.
- DeVoe, E., & Pfeffer, J. (2011). Time is tight: how higher economic value of time increases feelings of time pressur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6(4), 665-676.
- Ebert, E., Gilbert, T., & Wilson, D. (2009). Forecasting and backcasting: predicting the impact of events on the futur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6(3), 353-366.
- Festjens, A., & Janiszewski, C. (2015). The value of tim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2(2), 178-195.
- Finucane, L., Alhakami, A., Slovic, P., & Johnson, M. (2000). The affect heuristic in judgments of risks and benefit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3(1), 1-17.
- Förster, J., Friedman, S., Özelsel, A., & Denzler, M. (2006). Enactment of approach and avoidance behavior influences the scope of perceptual and conceptual atten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2), 133-146.
- Fredrickson, L., & Kahneman, D. (1993). Duration neglect in retrospective evaluations of affective episo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1), 45-55.
- Gable, A., & Poole, D. (2012). Time flies when you're having approach-motivated fun effects of motivational intensity on time perception. *Psychological science*, 23(8), 879-886.
- Garretson, R. C., & Mauser, F. F. (1963). The future challenges marketing. *Harvard Business Review*, 41, 168-78.
- Gilbert, T., Pinel, C., Wilson, D., Blumberg, J., & Wheatley, P. (1998). Immune neglect: a source of durability bias in affective forecas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3), 617-638.
- Gino, F., & Mogilner, C. (2014). Time, money, and morality. *Psychological Science*, 25(2), 414-421.
- Green, L., Fristoe, N., & Myerson, J. (1994). Temporal discounting and preference reversals in choice between delayed outcomes.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1(3), 383-389.
- Holmberg, J., & Robèrt, H. (2000). Backcasting-A framework for strategic plan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 World Ecology*, 7(4), 291-308.

- Jacoby, J., Szybillo, J., & Berning, K. (1976). Time and consumer behavior: An interdisciplinary overview.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4), 320-339.
- Kim, K., & Zauberman, G. (2009). Perception of anticipatory time in temporal discounting. *Journal of Neuroscience, Psychology and Economics*, 2(2), 91-101.
- Lam, C., & Buehler, R. (2009). Trips down memory lane: Recall direction affects the subjective distance of past ev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2), 230-242.
- Liberman, N., & Trope, Y. (1998). The role of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considerations in near and distant future decisions: A test of temporal construal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5-18
- Monga, A., & Bagchi, R. (2012). Years, months, and days versus 1, 12, and 365: The influence of units versus number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9(1), 185-198.
- Peetz, J., & Wilson, E. (2013). The post-birthday world: Consequences of temporal landmarks for temporal self-appraisal and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2), 249-266.
- Peetz, J., Wilson, E., & Strahan, J. (2009). So far away: The role of subjective temporal distance to future goals in motivation and behavior. *Social Cognition*, 27(4), 475-495.
- Preacher, J., & Hayes,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Rhodes, R., & Strain, J. (2008). Affective forecasting and its implications for medical ethics. *Cambridge Quarterly of Healthcare Ethics*, 17(1), 54-65.
- Ruby, B., Dunn, W., Perrino, A., Gillis, R., & Viel, S. (2011). The invisible benefits of exercise. *Health Psychology*, 30(1), 67-74.
- Sackett, A. M., Meyvis, T., Nelson, L. D., Converse, B. A., & Sackett, A. L. (2010). You're having fun when time flies: The hedonic consequences of subjective time progression. *Psychological Science*, 21(1), 111-117.
- Tice, M., Bratslavsky, E., & Baumeister, F. (2001). Emotional distress regulation takes precedence over impulse control: if you feel bad, do i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1), 53-67.
- Trommsdorff, G. (1983). Future orientation and social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8(1-4), 381-406.
- Trope, Y., & Liberman, N. (2000). Temporal construal and time-dependent changes in pre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6), 876-889.
- Trope, Y., & Liberman, N. (2003). Temporal construal. *Psychological review*, 110(3), 403-421.
- Wang, J., Hong, J., & Zhou, R. (2017). How long did I wait? The effect of construal levels on consumers' wait duration judgmen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5(1), 169-184.
- Wittmann, M., & Paulus, P. (2008). Decision making, impulsivity and time percep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2(1), 7-12.
- Zauberman, G., & Lynch Jr, G. (2005). Resource

- slack and propensity to discount delayed investments of time versus mone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4(1), 23-37.
- Zauberman, G., Kim, K., Malkoc, A., & Bettman, R. (2009). Discounting time and time discounting: Subjective time perception and intertemporal preferenc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6(4), 543-556.
- Zhao, M., Hoeffler, S., & Zauberman, G. (2007). Mental simulation and preference consistency over time: The role of process-versus outcome-focused though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4(3), 379-388.
- Ülkümen, G., & Thomas, M. (2013). Personal relevance and mental simulation amplify the duration framing effec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50(2), 194-206.
- 원 고 접 수 일 : 2018. 07. 11.
수정원고접수일 : 2018. 08. 12.
게 재 결 정 일 : 2018. 08. 16.

K C I

The Effect of Time Perception by Future Prediction on Purchase Intention of Individual Pension

Jung-ae Kim

Jae hwi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economic factors in order to live a happy life after retirement. Korea is suggesting the necessity of joining the individual pension as a means of economic factors. However, in spite of the previous studies that affect individual pension entrants, the participation rate of private pensions is still low.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s the individual pension as inter-temporal choice context and suggests the importance of the time factor to increase the intention of intention in the individual pension. Time perception in this study refers to how closely you perceive the time between your current and pension benefits, or whether you are aware that it will be coming soon. The purpose of study 1 was to investigate the importance of time perception in private pensions. In Study 2, proceeding with a factorial design of 2 (prediction: forecasting vs. backcasting) x 2 (affective valence of events: positive vs. negative) to examine the effects of prediction, affective valence of events on purchase intention of individual pension and to confirm that time perception mediates these effects. The result of Study 1 showed that time perception is the most important explanatory factor for joined the individual pension. In Study 2, the main effects of the prediction and the interaction between prediction and affective valence of events on purchase intention of individual pens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retely, the purchase intention of individual pensions was higher than that in backcasting condition. Specifically, in forecasting condition, when participants were in anticipated negative events, the purchase intention of individual pension was higher than in anticipation of positive events. In addition,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time perception moderated mediation effects. These studies have academic and practical significance by examining the influence of practical variables to promote the purchase intention of individual pension.

Key words : individual pension, future prediction, forecasting, backcasting, affective valence of event, time perception, purchase intention of individual pension